

네오아트센터 기획 초대전

최은정

“하늘 아래, 희망을 새기다”

Under the Sky, We Carve Hope

2026. 8. 19. WED — 10. 10. SAT

OPENING

2026. 8. 19. WED 16:00

4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최은정

Choi Eun Jeoung



1988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1992 이화여자대학 대학원 조소과 졸업

개인전 /

Gallery H. 갤러리 자작나무. 은평문화예술회관. 바우지움조각미술관. Gallery POINT. 갤러리엘르
부산 달리미술관. 돈의문박물관마을 H4. Gallery kosaspace.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스페이스선+. 갤러리아트유저. 진천 종박물관 초대전. 갤러리 미즈

국제여성비엔날레-여성작가 개인전

그 외 국제전/기획초대전/그룹전 약 200여 회

수상 /

2019 서울시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기획공모 당선

2018 국제조각페스타 관람객이 선정한 '인기작가상' 수상

작품소장 /

포항 문화재단. 시인 김관식 시비 (충남 강경군 소재)

대한항공 본사.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박영 장학문화재단. 자하연 한의원

송도 코스테이. 법률사무소 리버티. 식사동 베네하임 1차

부천 더마크 오피스텔. 일산 베네하임 오피스텔 3차,5차 더 호텔속초. 영등포 센트레빌

현재 /

동국대 인문대 미술학과 겸임교수 역임

동국조각회 회장 한국조각가협회 이사

한국여류조각가회, 아시아조각연구회, 고양조각회 회원.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입주작가

<http://www.facebook.com/eunjeoung.choi>

http://www.instagram.com/hopeful_choi

ejchoi84@naver.com

빛으로 건네는 위로 최은정의 하늘과 집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잠시 고개를 들면 마주할 수 있는 흰 구름 피어 있는 푸른 하늘을 머리 위에 두고도, 늘 삶의 굴레 속에서 발끝만 바라보며 바쁘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주하는 하늘 한 조각, 그 소박한 시선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은 숨통을 터주는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산다.

문득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삶의 '여유란 무엇인가'. 다소 철학적인 이 질문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려본다. 여유는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로 구분된다.

아무리 물리적 시간이 많아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늘 조급함에 쫓기기 마련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순리대로 삶을 매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에서, 나는 투명한 레진(PUR)과 아크릴, 그리고 LED라는 현대적 재료를 통해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하늘과 '마음의 여유'를 시각화하는 조각가 최은정을 마주한다.

작가와의 인연은 서울 코엑스 조각 페스타에서 시작되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나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것은 푸른빛을 머금은 채 정물처럼 서 있던 '집' 시리즈였다. 그 청량한 빛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지친 영혼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심리적 안식처처럼 다가왔다. 이후 전시장과 작업실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해 가며, 나는 그 청량한 빛 너머에 자리한 작가의 맑은 성품과 타협 없는 완벽주의를 마주하게 되었다.

작가의 작품을 가만히 시선에 담다 보면, 어릴 적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리던 동요 한 구절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작가가 수만 번의 절제된 손길로 쌓아 올린 레진의 층위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어 흐르고, 그 지붕 위에 살포시 앉은 초승달과 집의 형상은 지친 영혼을 싣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하얀 쪽배가 된다.

초기 작업이 하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상징하는 푸른 톤 위주였다면, 근작은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으로 나온 작가의 내적 해방감을 보여주는 따뜻한 위로로 확장된다. 입체 조각이 빛을 가두고 발산하는 '안식의 등대'로 존재한다면, 평면 부조 작업은 촘촘한 레진의 결을 쌓아 올려 청량한 푸른빛부터 해 질 녘의 포근한 노을빛까지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하늘의 온도를 복원해 낸다. 화면 가득 퍼지는 이 온기는 보는 이의 조급함을 고요히 내려놓게 만드는 묘한 '위로와 평안'을 선사한다.

그러나 관람객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는 이 다정한 서정성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작가를 알아가며 접한 그의 참모습은, 이 따스한 위로를 선사하기 위해 타협 없는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정직한 장인이었다. 그 지독한 완벽함의 바탕에는 사람과 작품을 향한 작가 특유의 맑고 따스한 성품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미학적 고집과 진정성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다. 지난 5월 기획전 당시, 배경이 투명한 작품을 전시장 벽면에 설치하는 과정이었다. 작품 너머로 고정용 검은색 못의 그림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이는 미세한 불순물이 있었다. 하지만 작가는 그 작은 '흐릿함'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붓을 들고 검은 못 위에 흰색 페인트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칠해 나가는 모습에서, 관람객에게 단 0.1%의 왜곡도 없는 순수한 빛만을 전하겠다는 작가적 진정성을 보았다.

최은정의 작업은 현대적 재료의 물성을 극진히 다루는 고도의 정밀 작업이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 속에서 빚어지기에, 그의 작품은 아주 작은 조형물조차 압도적인 디테일과 투명한 깊이감을 자랑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늘까지 지워내려는 작가의 완벽주의는 결국 관람객에게 가장 순수한 안식만을 건네고 싶어 하는 그의 따뜻한 성품과 완벽히 닿아 있다. 차가운 재료를 다루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더없이 따뜻하다.

"보일러실 같던 인생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다"는 작가의 고백처럼, 그의 작품은 오늘날 조급함에 쫓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하늘을 담을 여유가 있는가.

오는 19일 네오아트센터 초대전을 통해 선보이는 최은정의 작품 세계는 조형적 완벽함과 그 완벽함이 마침내 완성해 낸 눈부신 '위로와 평안'의 하늘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작가가 정성스레 페인트를 칠하고 레진을 다듬어낸 그 완벽한 온도가, 메마른 현대인의 가슴에 한 줄기 맑은 위로로 스며들기를 기대해 본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Hope260400

가변설치,
UVprint on Acrylic resin, LED, stainless steel, 2026



Hope191000

143x70x3.5cm,
143x70x3.5cm, UVprint on P.U.R Acrylic res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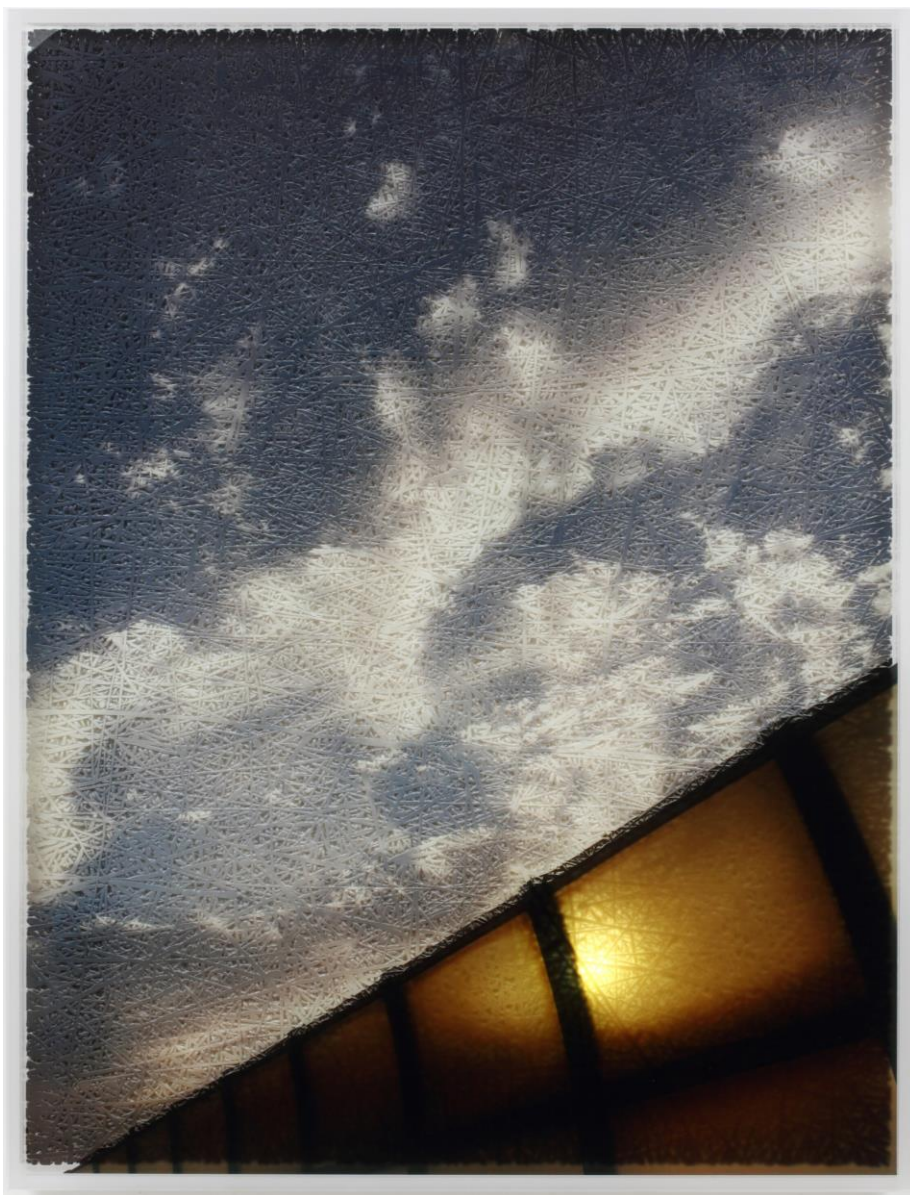
Hope260801

120x120x5cm,
UVprint on P.U.R, 2026



Hope260802 (Detail shot)

120x120x5cm,
UVprint on P.U.R, 2026



Hope160401

62x86x6cm,
UVprint on P.U.R Acrylic resi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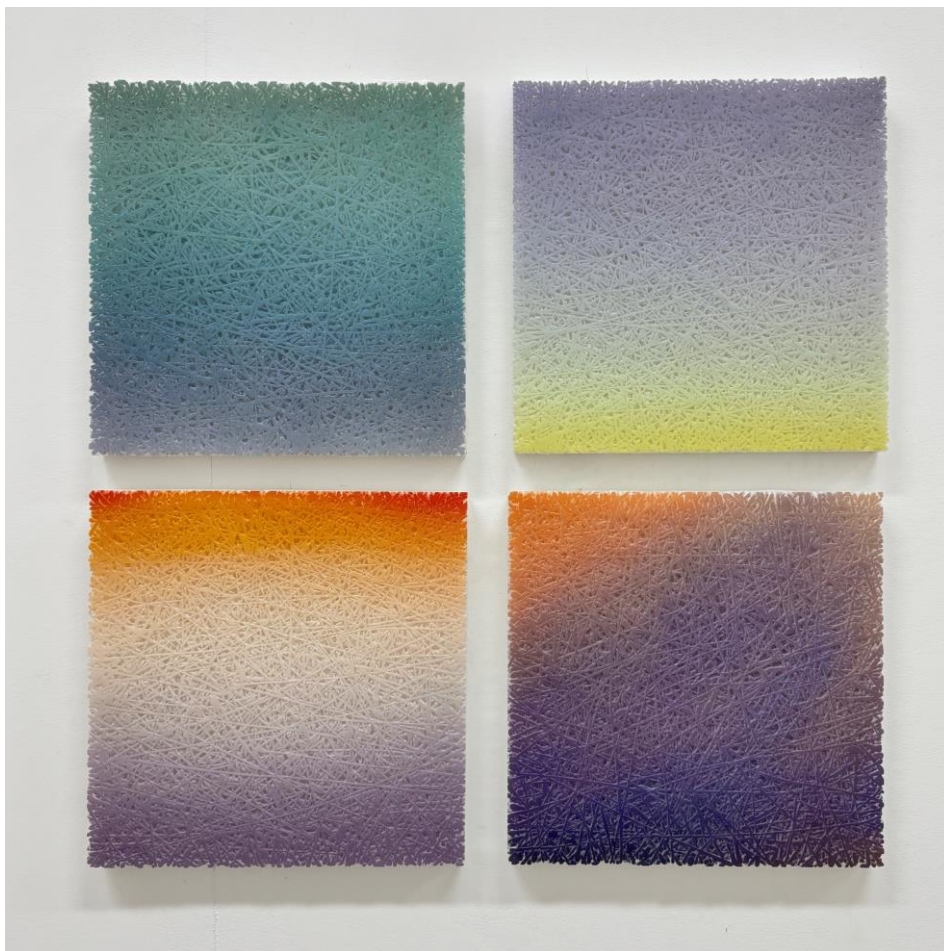
Hope160503

62x86x6cm,
UVprint on P.U.R Acrylic resin, 2016



Hope260803

60x150x3cm,
UVprint on P.U.R, 2026



Hope250701~04

35x35x3cm*4p,
UVprint on P.U.R, 2025



Hope260821

40x40x3cm,
UVprint on P.U.R Acrylic resin, 2026



Hope260822

40x40x3cm,
UVprint on P.U.R Acrylic resin, 2026

NEOArt